

2025학년도

# 9월 모평 영어영역

Etoos HERO 김형률



1등급의 가능성을 절대성으로!

with **HERO**

## 전략적 출제 분석

- 6월 모평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9월 모평에서도 여전히 난이도가 높은 유형인 **순서, 삽입, 빈칸의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이었으나 6월 모평과 비교했을 때 **그마저도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6월 모평에서 꽤 난이도가 높았던 **요지, 주제, 제목** 역시 9월 모평에서는 꽤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고 **함축의미** 문제 역시 **다른 유형들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긴 하였지만 6월 모평 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상적 지문이 없을 정도로 **지문의 난이도**는 상당히 평이했고, 선지를 통해 난이도를 조절하는 출제 기조는 유지되었지만 6월 모평에서 5지 선다 중 3개 정도의 혼동 선지를 주었던 경향과는 달리, **눈에 띄는 두 선지만을 선별하는 정도로 출제**되어 이 역시도 수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주목!** 9월 모평이 쉽게 출제되었다고 해서 올해 수능영어의 난이도가 쉬워질 전망은 아닙니다. 9월 모평을 통해서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수능은 9월 모평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주제, 제목** 중 한 문제 정도는 꽤 어렵게 출제하여 6월 모평보다는 수월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도 9월 모평 보다는 수월하지 못 한 흐름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학생들이 어려워 하던 순서, 삽입, 빈칸 역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순서, 삽입**의 경우 총 4문항이 출제되는 가운데, 4문제 중 2문제는 최상, 1문제는 중상, 1문제는 평이한 수준으로 6모 보다는 쉽게, 9모 보다는 어렵도록 출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빈칸**은 9월 모평과 비슷한 난이도로 4문제 중 1문제는 최상, 2문제는 중상, 1문제는 중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될 듯 보입니다. 올해 수능은 7~8% 정도를 유지하도록 출제될 듯 보이지만 학생들의 학습상태에 따라 6% 중반 정도로도 출제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2023 수능 역시, 2022년 6월 모평에서는 1등급 비율이 5.74%의 어려운 난이도로, 9월 모평에서는 15.97%로 꽤 쉬운 난이도로 출제하여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막상 2023수능은 7.8%의 난이도로 꽤 까다롭게 출제 되었습니다. 올해 2025수능 역시 같은 방향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9월 모평의 성적을 유지하려하기 보다는 이 보다 높아질 난이도를 예상하여 취약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 유형별 출제 분석

|                               |   |
|-------------------------------|---|
| <b>주제를 중심으로 한<br/>외부선지 문제</b> | 함축의미, 요지, 주제, 제목, 장문제목, 문단요약, 빈칸완성  |
|                               | <b>[지문]</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문은 읽기에 <b>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b></li> <li>② <b>'두 대상의 관계'</b>에 대한 지문을 선호</li> <li>③ <b>지문의 전개 파악</b>을 강조하는 흐름 (연결어 생략, A but B 구도, 같은 말 다른 식 표현의 전개파악 중요)</li> <li>④ 단순히 단어, 어구로 된 정보가 아닌 <b>진술의 이해,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정보 추출</b> 중요</li> </ol> <b>[선지]</b> <p>선지 간의 격차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일관된 경향. (정답 vs 매력적인 선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차원적이지 않고 <b>2차원적인 답</b> (오답소거 중요)</li> <li>② <b>비약적 선지</b> 유도 (직관적이지 않은 <b>정확한 정보의 조합</b>으로 접근 필요)</li> </ol> |
| <b>'논리'를 중심으로<br/>묻는 문제</b>   | 어휘추론, 장문어휘, 순서, 삽입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스킬로 풀기 어렵도록 출제 (바람직-수능의 본질을 강조)</li> <li>② 어휘추론 : 주제가 아닌 주변진술만으로 접근하여 직관적으로 답 선택하면 틀리도록 출제<br/>순서배열 :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로만 해결하려하면 어려웠던 문제<br/>문장삽입 : 자연스러움 vs 단절로 문제해결 시 정, 오답의 구분이 어렵도록 출제</li> </ol>  |

## 전략적 학습의 'Must vs Must not'

### 13:10 ~ 13:50: 40분

1구간 [01번 ~ 30번] : 함축의미(21번), 요지(22번), 주제(23번), 제목(24번), 어법(29번), 어휘추론(30번)

34% 58% 58% 55% 22% 53%  
54% 88% 66% 77% 74% 36%

2구간 [41번 ~ 42번] : 장문제목(41번), 장문어휘(42번)

63% 46%  
71% 56%

### 13:50 ~ 14:05: 15분

3구간 [35번 ~ 40번] : 무관한 문장(35번), 순서배열(36번, 37번), 문장삽입(38번, 39번), 문단요약(40번)

83% 13% 26% 51% 22% 42%  
76% 45% 62% 59% 74% 56%

### 14:05 ~ 14:20: 15분

4구간 [31번 ~ 34번] : 빈칸완성(31번, 32번, 33번, 34번)

16% 45% 46% 51%  
66% 44% 46% 31%

## 학습적 Focus로 본 9모

|             |  |
|-------------|--|
| <b>영어능력</b> | <p>&lt;영어의 익숙도&gt; 절대적으로 중요.</p> <p>① 어휘: 기출어휘 학습이 되었다면 모르는 어휘는 전혀 없었을 정도의 굉장히 평이한 수준</p> <p>② 문장: 6월 모평이 복잡한 문장 보다는 긴 문장으로 긴 호흡으로 읽기 어려웠던 반면, 9월 모평은 문장의 복잡성도 없었으며 긴 문장도 드문 평이한 정도.</p> <p>※ 2025 수능에서는 어휘의 수준과 문장의 수준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p>  |
| <b>사고력</b>  | <p>① 각 유형마다 출제 매뉴얼이 요구하는 &lt;명확하고 일관된 기준&gt;이 중요한 시험 (확실한 기초)</p> <p>② 지문을 공략할 때에는 반드시 <b>지문의 흐름을 파악해야만</b> 정확한 정보 활용이 가능한 지문 선택</p> <p>③ 순서, 삽입 유형의 경우, <b>스킬적인 깨닫추기 식 공부</b>가 아닌 <b>수능의 부질적인 논리적 글 읽기와 사고력</b> 필요</p> <p>④ 단적인 단어, 어구로서의 정보가 아닌 <b>진술의 이해와 의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b>로 해결되도록 출제</p> |

**주목!** 그저 읽으면 답이 쉽게 보일 수 있는 시험이 될 것이라는 영어영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본질적으로 학습하되,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공부를 할 것.

## 수능 영어학습의 '기준'

|     |                     |                               |                  |        |
|-----|---------------------|-------------------------------|------------------|--------|
| 하위권 | <b>읽기 능력</b>        | 읽을 수 있는 능력                    | 1. 어휘력<br>2. 해석력 | 4등급 이하 |
|     | <b>읽고 사고 하는 능력</b>  | 1. 주제 파악 능력<br>2. 글의 전개 파악 능력 | 능동적 사고력          | 3등급    |
|     | <b>문제 해결 능력</b>     | 정보 처리 능력                      | 정보 보기 & 활용       | 2등급    |
| 상위권 | <b>시험 운영 능력</b>     | 위기 관리 능력                      | 다지고 깨고 완성        | 1등급    |
|     | <b>틀리는 이유 수정 능력</b> | 악습관 파괴 능력                     |                  |        |

## After 9모

※ 영어능력과 사고력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양'이 아닌 '학습법'으로 대비하기

주목!

| 현시점         |              | 9모 이후  |
|-------------|--------------|--|
| Must        | 학습 투자 반드시 필요 | ※ 많은 양의 교재 학습 보다는 읽기, 읽고 사고하기, 정보활용법을 동시에 정리 필요<br>(1) 전략적 학습 필요<br>: 중위권 - 함의, 대의, 어휘, 장문 > 순서, 삽입, 빈칸<br>상위권 - 함의, 대의, 어휘, 장문 < 순서, 삽입, 빈칸<br>(2) 사고하는 방법 - 일관된 기준으로!<br>: 지문을 읽을 때 사고하는 '방법' & 선지를 선별할 때 사고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체화시키는 학습 필요<br>(3) 영어학습은 반드시 '정독'으로 마무리 할 것!<br>(어휘, 문장, 소재 등 모두를 포함한 영어능력의 익숙도를 높이는 최적의 학습)<br>(4) English Day 만들지 말 것! :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함이 가장 중요 |
| But         | 학습 투자 시간 부족  |  |
| Therefore   | 효율적 학습 필요    |  |
| I (You & I) | 목표 → 관심 → 실천 |  |

## 시기별 학습 'Must vs Must not'

### 1 '9월 ~ 수능': 영어 '읽고 사고' 하기

※ 모든 등급 '공통'

- (1) 어휘 ① 기본 어휘(기출어휘) 정확한 체화  
② 독해 어휘 학습 - 어휘의 실질적 쓰임 이해 및 체화
- (2) 정독하기 : 지문 읽고 사고하는 능력
  - ① 영문장의 익숙도 높이기
  - ② 지문의 전개(흐름) 파악 연습하기

### 2 '9월 ~ 수능': 전략적 '보완' 하기

※ '등급별' [학습 비중]

- (1) 2등급 이상 - 1+2구간(30) : 3+4구간(70)
- (2) 3등급 이상 - 1+2구간(50) : 3+4구간(50)
- (2) 4등급 이하 - 1+2구간(70) : 3+4구간(30)

### 3 '9월 ~ 수능': 전략적 '학습 분량' 운영하기

※ '등급별' [학습 분량] (숲 → 나무)

- (1) 2등급 이상 - (매주)모의고사 2회 + [3+4구간] 취약 유형 보완
- (2) 3등급 이상 - (매주)모의고사 2회 + [전 구간] 취약 유형 보완
- (3) 4등급 이하 - (매주)모의고사 2회 + [1+2구간] 취약 유형 보완

### 4 '9월 ~ 수능': 영어 '모의고사' 활용하기

※ 모든 등급 '공통' - 모의고사 활용법

- (1) 항상 '실전처럼' 풀기 [70분 : 45분 (듣기 포함)]
- (2) 전 유형 '점검'하기 ① 정보 '보기' ② 정보 '연결' 하기 ③ 정보 '활용'하기
- (3) 틀리는 이유 발견 및 보완
- (4) 핵심유형 '정독'하기

**유형별 일관된 접근****① 수능영어가 원하는 Must**

<유형별>

1. 정보 종류 : 유형별로 출제자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알고 있는가!
2. 정보 보기 : 정보를 보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3. 정보 활용 : 정보를 보았다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가!

**② 수험생의 ‘틀리는 이유 & 약습관’ Must Not****③ 수험생의 잘못된 학습법**

## 해석의 중요성

**해석** 출제자가 원하는 해석 =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는 해석  
→ <해석의 ‘기준’ 설정>이 중요

## 글의 개념과 정보

### 유형별 독해

1. 주제파악의 직접적 영향 : 대의, 어휘추론, 장문독해(41번,42번), 무관한 문장 찾기
2. 주제파악을 전제로 출제자의 의도(정보)의 영향 : 함축의미, 순서, 삽입, 문단요약, 빈칸완성

1. (21번). 밑줄 친 **from their veranda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54%] **[밑줄의 의도: 인과관계-원인]**

Around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anthropologists trained in the natural sciences began to reimagine what a science of humanity should look like and how social scientists ought to go about studying cultural groups. Some of those anthropologists insisted that one should at least spend significant time actually observing and talking to the people studied. Early ethnographers such as Franz Boas and Alfred Cort Haddon typically traveled to the remote locations where the people in question lived and spent a few weeks to a few months there. They sought out a local Western host who was familiar with the people and the area (such as a colonial official, missionary, or businessman) and found accommodations through them. Although they did at times venture into the community without a guide, they generally did not spend significant time with the local people. Thus, their observations were primarily conducted **from their verandas.**

\*anthropologist 인류학자 \*\*ethnographer 민족지학자

Words & Phrases

- go about ~을 시작하다
- insist 주장하다
-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 remote 외딴
- in question 연구[논의]되고 있는
- seek out ~을 찾아내다
- colonial 식민지의
- missionary 선교사
- accommodations 숙박 시설
- venture into ~을 탐험하다
- primarily 주로
- conduct (특정한 활동을) 하다

- [12%] ① seeking to build long-lasting relationships with the natives [반대]  
 [09%] ② participating in collaborative research with natural scientists [무관]  
**[54%] ③ engaging in little direct contact with the people being studied**  
 [16%] ④ cooperating actively with Western hosts in the local community [비약]  
 [09%] ⑤ struggling to take a wider view of the native culture examined [무관]

오답의 Pattern

- ① Minor의 Major화
- ② 단순한 내용 불일치
- ③ 무관한 선지
- ④ 출제자의 의도와 '반대'
- ⑤ '비약'적 선지

Hero' Explanation

“지문을 읽을 때는 ‘**밑줄의 의도**’에, 선지 선별 때는 ‘**비약**’에 주의해야..!”

“이 문제를 틀린 공극의 이유는 **출제자의 의도** 즉, **밑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 해서 지문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from에 해당부분에 밑줄이 있으니까 밑줄의 의도는 '방식'**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찰방식에 주목하여 지문에 정보를 추출해야만 합니다. **<합축의미>는 밑줄의 의도가 출제 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밑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석에 대한 기준 설정> **밑줄의 의도(출제자의 의도)** : [민족지학자의 관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밑줄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their"이 누구이냐>입니다. 그들의 관찰방식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인류학자들이 주장한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문의 특징> : 초기 민족지학자들의 이야기부터 사실상 위의 진술과 [역점]의 '반의'적 관계입니다. 즉, **However**이라는 **역점의 연결어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역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밑줄을 포함하고 있는 진술까지 읽어야만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지문의 특징입니다.

\* <연결어가 생략된 형태>는 이번 9월 모평에서도 종종 발견되었는데, **사실상 최근 수능영어의 Trend**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약적 사고를 유도하는 선지에 주의”

비약적 사고를 유도하는 것은 최근 수능의 Trend입니다. 이는 작년 9월 모평부터 비윈 기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능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닌 진술의 의도를 이해하며 정확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느냐'가 수능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점에서 출제자들이 더욱 선호하는 패턴인 것입니다.

<④번 선지> 지문에서는 지역 hosts를 찾아 숙박시설을 찾았을 뿐, 그들은 지역 사람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을 찾았다는 진술을 통해 협력했다고 비약적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accomdation이 '숙박시설'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이 부분부터 사고가 흐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다음에 이어지는 정보들에 보다 정확히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지문의 주제와 전개

### 주제

이 글의 주제는 20세기 초 인류학자들이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을 재구성하면서, 초기 민족지학자들이 문화 집단을 연구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글입니다. 특히,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전개

#### [서두 - 1문장] (주제 소개)

: 글은 20세기 초에 자연과학 훈련을 받은 인류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과학 연구 방법을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 [구체적인 주장 - 2문장] (직접 관찰의 중요성)

: 일부 인류학자들은 연구 대상인 사람들을 실제로 관찰하고 대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사례 - 3~4문장] (초기 민족지학자들의 연구 방식)

: 글은 Franz Boas와 Alfred Cort Haddon과 같은 초기 민족지학자들이 어떻게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는 외딴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 [연구 방법의 한계 - 5문장] (간접적 관찰)

: 그러나 이들 초기 민족지학자들은 현지 호스트를 통해서만 지역 사회에 접근했으며, 실제로는 현지인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 [결론 - 6문장] (관찰 방식의 제한)

: 결과적으로 이들의 관찰은 주로 베란다에서 이루어진 간접적 관찰에 그쳤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 ‘연계’ 복습 합시다!

- (1) 함축의미 : 밑줄의 의도 파악 [해석의 기준 설정] → ‘밑줄의 의도’에 맞추어 <잔여지문: 정보 vs 비정보> 보기 [SOAR CS 함축의미편]
- (2) 밑줄의 의도 : <인과관계>에서 [원인] 묻기 [SOAR CS - 함축의미 편 Part 2 - 3. 인과관계]
- (3) 강조했던 것들 잊지않습니다!
  - ① 함축의미, 빈칸 유형에서 <밑줄 혹은 빈칸이 묻고자 하는 대상이 둘 중 어느 대상에 관해 묻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것!
  - ② 최근 Trend는 연결어가 생략된 지문을 선호하기 때문에 반의적 흐름 파악에 주의!
  - ③ 최근 매력적인 오답의 Trend는 ‘비약적 선지’ : 지문의 정보의 정확한 활용에 주의!

**해석**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연과학에서 훈련받은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와 사회 과학자들이 문화 집단 연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인류학자들 중 일부는 다른 건 몰라도 연구 대상인 사람들을 실제로 관찰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ranz Boas와 Alfred Cort Haddon과 같은 초기 민족지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외딴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몇 주에서 몇 달을 보냈다. 그들은 (식민지 관료, 선교사 혹은 사업가와 같이) 주민들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서양인 호스트를 찾아내어 그들을 통해 숙박 시설을 구했다. 가끔은 그들은 정말이지 가이드 없이 그 지역사회를 탐험하기도 했지만, 대개 그들은 현지인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관찰은 주로 그들의 ‘베란다에서’ 행해졌다.

2.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 [66%]

[지문의 패턴: '반의'의 전개]

It is much more natural to be surprised by **unusual phenomena** like eclipses than **ordinary phenomena** like falling bodies or the succession of night into day and day into night. Many cultures invented gods to explain these eclipses that shocked, frightened, or surprised them; but very few imagined a god of falling bodies - to which they were so accustomed that they did not even notice them. **But the reason for eclipses is ultimately the same** as that of **the succession of night and day**: the movement of celestial bodies, which itself is based on the Newtonian law of attraction and how it explains why things fall when we let them go. For the physicist, **understanding the ordinary, the habitual, and the frequent thus allows us to account for the frightening and the singular**. As such, it was thus necessary to ask "Why do things fall?" and to have Newton's response to understand a broad range of much more bizarre phenomena occurring at every level of the universe.

\*eclipse 일식, 월식 \*\*celestial 천체의 \*\*\*bizarre 이상한

- [06%] ① widespread preference for mythical explanations over scientific ones
- [08%] ② limitations of Newtonian law in explaining eclipse phenomena
- [14%] ③ influence of scientific interpretations on perceptions of reality
- [66%] ④ need to pose questions about the usual to understand the unusual
- [06%] ⑤ difficulty of drawing general conclusions from unusual phenomena

Words & Phrases

- phenomena 현상
- ordinary 평범한
- succession 연속
- accustomed 익숙한
- physicist 물리학자
- singular 기묘한

오답의 Pattern

- ① 핵심어의 <유 vs 무> 판단  
: 무(無) → 오답
- ② 핵심어의 범주 확인  
: Minor의 Major화  
(\* Minor: 예시 / 부분, 일시)
- ③ 핵심어 간의 논리적 관계 확인  
- A but B : A → 오답  
- A(원인), B(결과)  
: A(결과), B(원인) → 오답
- ④ 출제자의 의도와 '반대'
- ⑤ '비약'적 선지

Hero' Explanation

"이 문제는 '핵심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해내느냐'에 따라 달라졌던 문제입니다. (역시 '서두'가 중요했던 문제!!)  
그런데 사실 핵심어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선지를 얼마나 Detail하게 분석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했던 문제인 것입니다.

<해석에 대한 기준 설정> 서두 파악(출제자의 의도) : <평범한 현상과 특이한 현상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 모든 주제의 <핵심어>는 [서두]에서 언급됩니다. 따라서, 그 핵심어를 파악하기 위한 서두에 주목해야 하고, [서두]에서 <해석의 기준을 설정>하여 그와 관련한 정보들을 <연결>하여 찾아가야만 합니다.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보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전개 방향[순접 vs 역접]'입니다.

<지문의 특징> : 서두에서 주제가 뚜렷한 지문을 발췌하면 답을 쉽게 도출하기 때문에 <역접>의 '반의' 전개의 지문으로 출제되었네요. 최근 수능영어는 지문의 수준을 낮추면서 단순하게 지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문보다는 <서두에서부터 말미>까지 <글의 전개>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주제 및 정보의 흐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서두에서부터 그 이후의 전개방향에 주목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그 정보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어인 '두 대상 간의 관계'에 주의"

<③번 선지>를 최근 지문은 핵심어로 언급되는 <두 대상간의 관계>에 관한 지문이 선호되고 있고, <두 대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인과의 관계>일 때, <어느 쪽이 영향을 주고, 어느 쪽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평범한 현상의 이해가 특이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옳은 관계인데, ③번은 반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지문의 말미까지 전개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처음과 마지막, 혹은 마지막 부분에만 주목하게 되면 글의 주제와 달리 파악하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오답의 패턴입니다. 따라서, 주의해야만 할 것은 첫째, 처음과 마지막에만 주목하지 말고(특히, 마지막 부분에만...) 전개방향에 주목할 것. 둘째, 두 대상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 지문의 주제와 전개

### 주제

이 글의 주제는 평범한 현상의 이해가 비범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평범한 현상, 예를 들어 물체의 낙하나 밤낮의 교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eclipses와 같은 드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필수적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전개

[서두: 비범한 현상과 평범한 현상의 대조 - 1문장]

: 글은 eclipses와 같은 드문 현상이 떨어지는 물체나 밤과 낮의 교체와 같은 평범한 현상보다 더 놀라움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문화적 반응의 비교 - 2문장]

: 다양한 문화가 이클립스 같은 비범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화를 창조했지만, 익숙한 현상인 물체의 낙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반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주제의 시작) - 3문장]

: 그러나 물체의 낙하와 eclipses는 모두 동일한 원리, 즉 뉴턴의 중력 법칙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평범한 현상의 중요성(주제문) - 4문장]

: 물리학자들에게는 평범하고 자주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드문 현상을 설명하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결론 - 5문장]

: 따라서 물체의 낙하와 같은 평범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더 기이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 ‘연계’ 복습 합시다!

- (1) 최근 대의 문제의 지문 Trend는 <두 대상의 관계>를 다룬다! [SOAR CS 대의 개념편]
- (2) 주제, 제목 문제에서 고난도 선지의 패턴으로 <두 대상의 잘못된 논리적 관계>에 주의!  
[SOAR CS - 대의 Part 2 - 2. 선지 선별이 어려운 경우 p.40]
- (3) ‘서두부터 중반까지의 전개’를 통해 핵심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고난도!  
[SOAR CS - 대의 Part 2 - 1. 핵심어 파악이 어려운 경우 p.36]

**해석** 낙하하는 물체나 밤이 낮으로, 낮이 밤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평범한 현상보다 일식과 같은 특이한 현상에 놀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들에게 충격, 공포, 또는 놀라움을 주었던 이러한 일식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문화에서 신을 만들어 냈지만, 너무 익숙해서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낙하하는 물체의 신을 상상했던 문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밤과 낮이 연속되는 이유와 궁극적으로 동일한데, 즉 그 자체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기반하는 천체의 움직임과 그것이 우리가 물체를 놓으면 왜 떨어지는지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물리학자로 말할 것 같으면, 평범한 것, 습관적인 것, 빈번한 것을 이해하여 우리가 무서운 것과 기묘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그와 같이, 우주의 모든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훨씬 더 기이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체는 왜 떨어지는가?”라고 질문하는 것과 뉴턴식의 답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

3. (30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3) [36%] **[연결어 생략 / 부정,반박 구도]**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as **rational actors**, careful and considered in our thinking, capable of sound and reliable judgments. We might believe that we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make ① **informed** decisions. We are, in fact, "**predictably irrational**," as psychologist Dan Ariely titled his book on the topic. All of us engage in **automatic, reflexive thinking**, typically taking the ② **easier** path **(and) conserving mental effort**. Although we each may have the subjective impression that we are careful thinkers, we often make snap judgments or no real judgments at all. In addition, numerous biases inhibit or override reflective, deliberative thought; **intuitive theories** can **(also) interfere with** ③ **acceptance** of accurate scientific explanations. Understanding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and how biases may operate can make us each ④ **less** subject to fallacious reasoning, **more rational, and more aware of the problems in others' thinking**.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⑤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can also **help us improve our ability to inform others more effectively**.

Words & Phrases

- rational 합리적인
- sound 타당한
- informed 정보에 입각한
- engage in ~을 하다
- reflexive 반사적인
- conserve 절약하다, 아끼다
- subjective 주관적인
- impression 인상
- snap 성급한
- numerous 수많은
- bias 편향
- inhibit 억제하다
- override 무시하다
- reflective 성찰의
- deliberative 신중한, 숙고하는
-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 accurate 정확한
- subject to ~에 걸리기 쉬운

\*intuitive 직관적인 \*\*fallacious 오류가 있는

- ① (04%)    ② (06%)    ③ (14%)    ④ (39%)

Hero' Explanation

“어휘문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논리적으로 어휘의 쓰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논리적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주제>라는 점입니다.

앞서, 대의 문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두>지요.

**‘모든 밑줄친 어휘들은 주제를 나타내는 어휘들’**이라는 점!!!

이런 어휘문제에서 출제자는 ‘**주제파악의 혼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대립, 역접구도>의 전개 지문을 선호합니다. (SOAR-CS 참조)

올해 9월 모평 역시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역접구도로 출제되어 Trend를 반영했습니다.

결국 밑줄 친 어휘들이 ‘합리성’과 관련한 어휘인지, ‘비합리성’과 관련한 어휘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더불어 주제인 인간의 ‘비합리성’과 관련하여 반대가 되는 어휘로서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의 특성> 이 지문에서도 역접의 연결어인 however이 생략된 형태로 글이 전개되었습니다.(확실히 최근 Trend) 물론 여기서 in fact가 역접으로 사용된 것이 맞기는 하지만, In fact가 무조건 역접을 이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반의적 관계를 통해 확실히 반의적인 것을 판단했어야 옳은 판단이 이어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확실히 인간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으로 반의적 구도를 고려했어야만 합니다.**

<④번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수험생들의 **악습관**>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면서도 막상 시험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악습관’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긍정적 표현 뒤에 이어지는 ‘부정’의 뉘앙스를 띄어 어휘면 무조건 어색함을 느끼고 그 어휘의 쓰임이 틀린 어휘라고 판단해버는 악습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주어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기에 서술 역시 ‘긍정’이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less’라는 부정의 표현이 있기에 적절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누리만으로 어휘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제를 기준]으로 [주변누리를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subject to를 해석하지 못해서 정확하지 못 한 해석으로 판단이 흐려졌을테지만, 그래도 주제와 뒤에 and 이후의 진술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less가 옳게 쓰인 어휘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지문의 주제와 전개

### 주제

인간의 사고 과정이 예상 외로 비이성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비이성적 사고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입니다.

### 전개

#### [자기 인식에 대한 착각 - 1문장]

: 사람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고자로 여기며, 다른 관점을 고려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믿습니다.

#### [실제로는 비이성적 사고 - 2문장]

: 그러나, 심리학자 Dan Ariely가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은 실제로는 예측 가능하게 비이성적인 사고를 합니다. 우리는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사고를 자주 하고, 정신적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 [편향과 직관적 이론 - 3문장]

: 여러 가지 편향이 반사적이고 숙고된 사고를 방해하거나 억제합니다. 또한, 직관적인 이론이 정확한 과학적 설명을 수용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이성적 사고를 이해하는 중요성 - 4문장]

: 우리의 사고 방식과 편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면, 우리는 오류가 있는 사고에 덜 영향을 받게 되고, 더 합리적이 되며, 다른 사람들의 사고 문제를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5문장]

: 우리의 사고 과정의 '비이성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사고를 개선하고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연계' 복습 합시다!

(1) 어휘 문제의 최근 Trend는 반드시 <주제>를 '기준'으로 주변논리와 함께 적절함을 묻는 형태로 출제!

(2) 어휘 문제의 최근 Trend는 <부정/반박, 대조구도>를 통해 <두 대상의 관계>에 관한 지문

↳ 밑줄의 어휘가 A or B 둘 중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 어휘인가 판별 중요

[SOAR CS - 어휘추론 Part 2 - 2. 부정, 반박 도구를 통한 주제 혼동 유발 p.98]

[SOAR CS - 어휘추론 Part 2 - 3. 대조구도를 통한 주제 혼동 유발 p.102]

**해석** 우리는 모두 자신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며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여기고 싶어 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린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는 심리학자 Dan Ariely가 이 주제에 관한 자신의 책에 붙인 제목처럼 '예측할 수 있게 비합리적'이다. 우리는 모두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사고를 하며, 일반적으로 더 쉬운 길을 택하고 정신적 노력을 절약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주관적인 인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급한 판단을 내리거나 실제 판단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게다가, 수많은 편향이 성찰적이고 신중한 사고를 억제하거나 무시하는데, 직관적인 이론도 정확한 과학적 설명의 수용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편향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잘못된 추론에 덜 빠지고, 더 합리적이며, 다른 사람의 사고의 문제점을 더 잘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정신 과정에 내재한 **합리성(→ 연계)**를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 [41~42]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

People are correct when they feel that the written poetry of literate societies and the oral poetry of non-literate ones differ considerably from the everyday language spoken in the community. Listeners not only accept the (a) **strange** use of words, rearrangement of word order, **assonance**, alliteration, rhythm, rhyme, compression of thought, and so on — they actually expect to find these things in poetry and they are disappointed when poetry does not sound "poetic." **But** those who regard poetry as a (b) **different** category of language altogether are deaf to the true achievements of the poet. Rather, **the poet artfully manipulates the same raw materials of his language as are used in everyday speech; his skill is to find new possibilities in the resources already in the language.** In much the same way that people living at the seashore **become so accustomed** to the sound of waves that they no longer hear it, most of us have become (c) **sensitive** to the flood tide of words, millions of them every day, that hit our eardrums. One function of poetry is to depict the world with a (d) **fresh** perception to make it **strange** — so that we will listen to language once again. But the successful poet never departs so far into the strange world of language that none of his listeners can (e) **follow** him. He still remains the communicator, the man of speech.

\*assonance 유운(類韻) \*\*alliteration 두운(頭韻) \*\*\*depict 묘사하다

41.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1%]

[71%] ① **Make It New: How Poetry Refreshes Everyday Language**

[03%] ② Why Do Poets No Longer Seek Inspiration from Nature? [Minor]

[11%] ③ The Influence of Natural Sounds on Poetic Expression [Minor]

[11%] ④ Ways to Cite Poetic Expressions in Everyday Speech

[04%] ⑤ Beauty Rediscovered: The Return of Oral Poetry

42. 밑글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03%] ① (a) [13%] ② (b) [56%] ③ (c) [13%] ④ (d) [15%] ⑤ (e)

Words & Phrases

- rearrangement 재배열
- rhyme 운(음조가 비슷한 글자)
- compression 압축
- altogether 완전히
- deaf 귀를 기울이지 않는
- artfully 교묘하게
- manipulate 능숙하게 조작하다
-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해지다
- eardrum 고막
- depart 떠나다

오답의 Pattern

- ① 핵심어의 <유 vs 무> 판단 : 무(無) → 오답
- ② 핵심어의 범주 확인 : Minor의 Major화 (\* Minor: 예시 / 부분, 일시)
- ③ 핵심어 간의 논리적 관계 확인 - A but B : A → 오답 - A(원인), B(결과) : A(결과), B(원인) → 오답
- ④ 출제자의 의도와 '반대'
- ⑤ '비약'적 선지

## 지문의 주제와 전개

### 주제

시의 언어와 그 기능은 일상 언어와 다르지만, 시인은 일상 언어의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여 독자에게 신선한 인식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 전개

#### [시와 일상 언어의 차이 - 1~2문장]

: 문자 사회의 시와 비문자 사회의 구술 시가 일상 언어와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서, 청중은 시에서 예상되는 독특한 표현을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 [시를 언어의 전혀 다른 범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 - 3문장]

: 시를 완전히 다른 언어로 보는 사람들은 시인이 언어 자원을 예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합니다.

#### [일상 언어와 시의 공통점과 시인의 역할 - 4~5문장]

: 시인은 일상 언어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을 예술적으로 조작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며, 이는 일상에서 쉽게 간과되는 언어의 가능성을 다시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 [시인의 기술 - 6문장]

: 시의 주요 기능은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묘사하여 독자가 언어를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시인은 청중이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언어를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해석** 사람들이 문자 기반 사회에서 문자로 쓰인 시와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에서 말로 전달되는 시가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일상의 언어와 상당히 다르다고 느낄 때 그들은 옳은 것이다. 감상자는 단어의 낯선 사용, 어순의 재배열, 유운, 두운, 운율, 운, 사교의 압축 등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시가 '시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는 실망한다. 그러나 시를 완전히 다른 범주의 언어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시인의 진정한 업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인은 일상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언어의 원료를 교묘히 조작하는데, 그의 솜씨는 이미 언어에 있는 자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과 아주 마찬가지로, 우리 대부분은 고막을 때리는 매일 수백만 단어로 흡수처럼 쏟아지는 말에 **민감하게(→ 무감각하게)** 된다. 시의 한 가지 기능은 신선한 인식으로 세상을 묘사하여, 즉 그것을 낯설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어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을 이룬 시인은 낯선 언어의 세계로 결코 자신의 청취자 중 누구도 자신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멀리 떠나지는 않는다. 그는 여전히 (효과적인) 전달자, 즉 언어의 능숙한 사용자로 남아 있다.

5. (36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5) [45%]

Words & Phrases

- accumulate 축적하다, 쌓다
- unit 단위
- adjustment 조정
- slightly 약간
- accommodate 수용하다
- separately 개별적으로
- modify 수정하다

일관성 : 작가의 6가지 습관

- ① 같은 말 다른 식 표현
- ② 처음 / 마지막을 나타내는 표현
- ③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 ④ 전제, 조건의 표현
- ⑤ 비교급의 표현
- ⑥ 논리정보장치  
- 연결어 / 지시어, 대명사

If learning were simply a matter of accumulating lists of facts, then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if we are presented with information that is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or **totally new information**. <제시문 속의 논리구조가 뚜렷한 경우 : 두 대상의 대립>

(A) If we are trying to understand **something totally new**, **however**, we need to make **larger adjustments** to the units of the patterns we already have, which requires changing the strengths of large numbers of connections in our brain, and this is a difficult, tiring process.

<전제조건의 표현 / 연결어 / 비교급 / 같은 말 다른 식 표현>

(B) **The adjustments** are clearly smallest **when** the new information is **only slightly new** - when it is compatible with what we already know, so that the old patterns need **only a little bit of adjustment** to accommodate the new knowledge.

<전제조건의 표현 / 같은 말 다른 식 표현>

(C) **Each fact** would simply be stored separately. According to connectionist theory, **however**, our knowledge is organized into patterns of activity, and each time we learn something new we have to **modify the old patterns** so as to **keep the old material** while adding the new information. [3점]

<지시어, 대명사 / 연결어 / 같은 말 다른 식 표현>

\*compatible 양립하는

- [04%] ① (A)-(C)-(B)      [18%] ② (B)-(A)-(C)      [09%] ③ (B)-(C)-(A)  
 [24%] ④ (C)-(A)-(B)      [45%] ⑤ (C)-(B)-(A)

Hero' Explanation - 틀린 이유

<지문의 특징> : however, Each와 같은 논리정보장치인 **연결어, 지시어를 제시했지만 이런 장치들로 시선을 끌게 하여 정작 쉽고 중요한 정보들을 보지 못 하도록 출제했습니다.**(전제조건 - if절과 when절의 관계, 비교급 등) 또한, **연결어, 지시어를 기술적으로 사용해서는 맞추기 어렵고 제대로 된 활용법이 충분히 훈련이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최근 순서배열 문제의 Trend이기도 합니다.

[제시문]에서 <이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약간 다른 지식, 완전히 다른 지식>의 '두 대상'에 주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제시문 속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대상으로 글 전체의 구조를 암시하는 패턴>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출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MVP-DB 확인>

(A)와 (B)가 선두문이 될 수 없고, (C)가 선두문이 되는 이유를 찾지 못 한 이유

- 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시문에서 서로 다른 두 대상에 대해 기준을 잡지 못 했기 때문에 (A)와 (B)에서 제시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 ② (C)에서 **Each fact**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 (지시어, 대명사 활용법을 잘 못 알고 있기 때문)  
 오히려, (A)와 (B)의 내용들을 Each fact로 여겨서 순서의 마지막말로 착각함. (지시어, 대명사 활용법을 잘 못 알고 있기 때문)

(A)와 (B)의 선후관계의 오류 원인 : however에만 의존하여 <비교급, 전제조건의 표현 단서>를 확인하지 못 함.



## 지문의 주제와 전개

### 주제

학습은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과 통합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새로운 정보가 기존 지식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전개

#### [가정 - 1문장]

: 학습이 단순히 사실 목록을 축적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새로운 정보나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 [Connectionist Theory 설명 - 2문장]

: 하지만,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활동 패턴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기존 패턴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식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적은 조정의 필요성 - 3문장]

: 새로운 정보가 기존 지식과 유사할 때, 기존 패턴에 약간의 조정만 필요하므로 조정이 가장 작다고 설명합니다.

#### [큰 조정의 필요성 - 4문장]

: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면 기존 패턴에 큰 조정을 해야 하며, 이는 대규모의 연결 강도를 변화시키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 [결론 - 5문장]

: 이 지문은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과 통합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를 설명하며, 정보의 유사성에 따라 이 과정의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 '연계' 복습 합시다!

- (1)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의 '정확한 활용법'을 정리하고 익혀야 합니다. [MVP-DB (1) 지시어,대명사,연결어 활용법 p.14]
- (2) [전제, 조건의 표현]들의 '활용법'이 체화되어야만 합니다. [MVP-DB (3) 전제, 조건 & 선후 표현 p.18]
- (3) [비교급] 표현의 활용법 역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게 익혀놓아야만 합니다. [MVP-DB (6) 논리정보장치&비교급 p.24]
- (4) 순서배열에서 [자주 출제되는 패턴]에 대해 완전히 익혀두어야만 합니다.  
[MVP-DB 2. 순서배열의 두드러지는 패턴 p.26]  
[MVP-DB (2) 제시문의 논리적 구도가 뚜렷할 때 p.28]

**해석** 학습이 단순히 사실의 목록을 축적하는 문제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넘어서는 정보가 제공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C) 각 사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저장될 것이다. 그러나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활동 패턴으로 조직되며,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이전 자료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패턴을 수정해야 한다. (B) 새로운 정보가 약간만 새로운 것일 때, 즉 그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있어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패턴을 약간만 조정하면 될 때 조정은 분명 가장 적다. (A)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패턴의 단위를 더 크게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뇌의 수많은 연결 강도를 변경해야 하며, 이것은 어렵고 피곤한 과정이다.

6. (38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6) [59%]

〈제시문에 연결어가 없는 경우 : 전제, 조건의 표현 / 비교급 활용 / 제시문의 뚜렷한 논리구조〉

**If not, the robot might endlessly chase itself rather than the blocks.**

People involved in the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s designed to perceive and act know **how fundamental is the ability to discriminate oneself from other entities in the environment. Without such an ability, no goal-oriented action would be possible.** ( ① ) Imagine that you have to build a robot able to search for **blocks** scattered in a room in order to pile them. ( ② ) Even this simple task would require that **your machine be able to discriminate between stimulation that originates from its own machinery and stimulation that originates from the blocks in the environment.** ( ③ ) Suppose that you equip your robot with an artificial eye and an artificial arm to detect, grab, and pile the blocks. ( ④ ) **To be successful, your machine will have to have some built-in system enabling it to discriminate between the detection of a block and the detection of its own arm.** ( ⑤ ) Your robot would engage in circular, self-centered acts that would **drive it away from the target or external goal.**

Words & Phrases

- chase 쫓아가다, 추적하다
- conception 구상, 고안
- fundamental 핵심적인, 근본적인
- discriminate 구별하다, 차별하다
- scatter 흩어지게 하다
- stimulation 자극
- originate from ~에서 발생하다
- equip ~ with ... ~에게 ...을 갖추게 하다
- artificial 인공의, 인위적인
- detect 감지하다, 발견하다
- external 외부의, 외적인

\*entity 실재물(物)

( ① : 01% ) ( ② : 05% ) ( ③ : 13% ) ( ④ : 22% ) ( ⑤ : 59% )

Hero' Explanation

“문장삽입형을 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작정 '단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기준없이 갑자기 끊어지는 느낌만으로 단절을 찾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지요.

순서배열과 마찬가지로 문장삽입 유형 역시, **순수 출제 매뉴얼**에서 그 기준을 <일관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문장삽입형도 <단절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통점>, <차이점>으로 '덩어리(chunk)'부터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절>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단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문장삽입형은 <뚜렷한 단절>을 보이는 문제도 고난도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제시문과 지문에서의 진술의 선후관계가 옳은지>에 초점을 두고 출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단절이기는 하지만, 굳이 '제시문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단절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문장 삽입형에서 또 하나의 학생들의 약습관 중 하나는 <제시문 속의 특정 표현과 지문 속 진술의 특정 표현이 같은 표현>으로 쓰이면 정답은 그 근처라는 근거없는 기준을 세우기도 하죠... 그럴 때 바로 함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지문의 특징> : 흔히, <제시문 속에 연결어를 주지 않고, 연결어 아닌 다른 정보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출제했습니다.

<전제, 조건의 활용법, 비교급의 활용법>을 잘 익히고 있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 역시도 문장삽입형의 Trend입니다.

<④번 선지>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유추해보면, 제시문을 선지에 넣어보고 해석상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제시문을 ④번 선지에 넣고 해석하면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글의 일관성을 이해하지 못한 점근이며,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습니다. 글의 일관성을 생각하면, ④번 선지이전의 진술과 ④번 선지이후의 진술이 같은 말의 공통점을 지닌 것은 Chunk(덩어리)이며, ⑤번 선지이후의 진술이 제시문과 같은 Chunk(덩어리)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⑤번 선지이후의 진술인 'drive it away from the target or external'이 제시문 속의 "the robot might endlessly chase itself rather than the blocks"와 같은 말 다른 식 표현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 역시 ⑤번이 아닌 ④번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지문의 주제와 전개

### 주제

이 글은 로봇 설계에서 자기와 환경의 다른 객체를 구별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 전개

[로봇 설계에 있어서 자기 구별 능력의 중요성 - 1문장]

: 로봇 설계자는 로봇이 환경에서 자신과 다른 객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목표 지향적 행동의 가능성 - 2문장]

: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목표 지향적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예시로 제시된 로봇의 작업 - 3문장]

: 로봇이 방에 흩어진 블록을 찾아 쌓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가정을 제시합니다.

[자극을 구별하는 시스템의 필요성 - 4문장]

: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로봇이 자기 기계와 블록에서 발생한 자극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로봇에 인공 눈과 팔을 장착한 상황 - 5문장]

: 로봇에 인공 눈과 팔을 장착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성공을 위한 구별 시스템의 필요성 - 6문장]

: 성공하려면 로봇이 블록과 자신의 팔을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구별 실패 시의 결과 - 7문장]

: 구별 시스템이 없으면 로봇이 자신을 쫓아다닐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자기중심적 행동 - 8문장]

: 로봇이 목표에서 벗어나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빠질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 '연계' 복습 합시다!

- (1) 문장삽입형의 출제 Trend 중에는 '제시문에 연결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비 해주어야만 하는 패턴입니다.  
[MVP-DB 2. 제시문에 연결어가 없는 경우 p.62]
- (2) <연결어를 대신한, 뚜렷한 정보들>에 익숙해지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제시문 속에 <전제, 조건>이 있는 경우는 확실한 Trend!  
[MVP-DB (3) 전제, 조건의 표현 p.68]
- (3) 제시문 속에 <비교급>이 있는 경우 역시, 활용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미리 대비해둡시다! [MVP-DB (5) 비교급 p.70]

**해석**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된 로봇의 구상과 엔지니어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주위의 다른 실재물과 자신을 구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핵심적인지 알고 있다.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분이 블록을 쌓기 위해 방에 흩어져 있는 블록을 찾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고 상상해 보라. 이 간단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기계는 자신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자극과 주위의 블록에서 발생하는 자극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로봇에 인공 눈과 인공 팔을 갖추게 하여 블록을 감지하고, 잡고, 쌓도록 한다고 가정해 보라.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여러분의 기계에는 그것이 블록 감지와 자신의 팔 감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로봇이 블록이 아닌 자기 자신을 끝없이 쫓아갈 수도 있다.** 로봇은 자신을 목표물이나 외부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순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07. (40번)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7) [56%]

Words & Phrases

- distinction 차이, 구별
- principle 원칙, 원리
- restricted 제한된, 한정된
- literally 말 그대로
- infinitely 엄청, 대단히, 무한히
- superior 뛰어난, 우수한, 우월한
- utilize 활용하다

<정보가 '진술'인 경우>

**Human speech differs from the cries of other species in many ways.**

One very important distinction is that all other animals use one call for one message as the general principle of communication. This means that the number of possible messages is very restricted. If a new message is to be included in the system, a new sound has to be introduced, too. After the first few tens of sounds it becomes difficult to invent new distinctive sounds, and also to remember them for the next time they are needed. Human speech builds on the principle of combining a restricted number of sounds into an unlimited number of messages. In a typical human language there are something like thirty or forty distinctive speech sounds. These sounds can be combined into chains to form a literally unlimited number of words. Even a small child, who can communicate by only one word at a time, uses a system for communication that is infinitely superior to any system utilized by any other animal.

In animal cries, each call \_\_\_\_\_ (A) \_\_\_\_\_ a different message, which limits the number of possible messages, whereas human language creates an unlimited number of messages using a \_\_\_\_\_ (B) \_\_\_\_\_ set of distinctive sounds.

- |                    |                      |
|--------------------|----------------------|
| (A)                | (B)                  |
| [56%] ① represents | ..... finite         |
| [21%] ② symbolizes | ..... universal [비약] |
| [03%] ③ distorts   | ..... fixed          |
| [13%] ④ expresses  | ..... novel [비약]     |
| [07%] ⑤ records    | ..... complex        |

Hero' Explanation

“문단요약형 틀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조건 동의어 찾기>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에서 빈칸 간의 논리적 관계 혹은 빈칸과 빈칸 주변 표현들과의 <논리적 관계>가 '기준'이 되어야만 지문 속에서 제시문에 들어갈 표현을 '같은 말 다른 식 표현'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제시문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저 <지문과 선지>와의 관계만 주목하여 <무조건 동의어>를 찾기 때문에 틀리는 것입니다.

<제시문 속의 표현들을 지문 속에서 정확히 찾아 해당표현들의 의미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②번 선지> : 지문과 선지의 관계에만 주목하여 지문 속에서 무조건 동의어만 찾으려하다가 동의어가 보이지 않아 그나마 가깝다고 생각한 어휘를 선택한 듯 합니다. (A) 지문 : restrict → 선지 : symbolizes, (B) 지문 : unlimited, infinitely → 선지 : universal

<④번 선지> : 오히려 ②번 선지보다 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다만, 비약적으로 판단하여 틀린 것입니다. (A)의 expresses는 해당될 수도 있으나 (B)의 novel의 경우 지문의 밑줄의 정보들과 distinctive의 의미를 '한정된'의미로부터 한정되기에 '참신하고 새롭다'고 판단하여 novel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 지문의 주제와 전개

### 주제

이 글은 인간의 언어는 제한된 수의 소리를 조합하여 무한한 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동물들의 의사소통 시스템과 크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 전개

#### [인간 언어와 동물 울음소리의 차이점 - 1문장]

: 인간의 언어는 다른 종의 울음소리와 여러 면에서 다르며, 특히 다른 동물들은 하나의 울음소리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동물 의사소통의 한계 - 2문장]

: 이로 인해 동물들의 의사소통에서 가능한 메시지의 수가 매우 제한되며,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소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인간 언어의 조합 원리 - 3문장]

: 인간 언어는 제한된 수의 소리를 조합하여 무한한 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무한한 수의 단어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인간 언어의 우월성 - 4문장]

: 심지어 한 번에 하나의 단어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아이도 다른 동물의 의사소통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 [결론 - 5문장]

: 이 지문은 인간 언어의 독특한 특징을 강조하며, 인간이 제한된 수의 소리를 사용해 무한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동물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얼마나 크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합니다.

## ‘언제’ 복습 합시다!

- 문단요약에서의 정답을 위해 동의어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버린 접근법입니다.  
정답은 ‘단어’로 주어지지만 지문에서의 정보는 ‘진술 혹은 덩어리’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고 생각’해서 판단합시다!  
[구간별 Decisive Battleground 문장삽입 개념 정리]

**해석** 인간의 말은 다른 종의 울음소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차이는 다른 모든 동물은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나의 메시지에 하나의 울음소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능한 메시지의 수가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새로운 메시지가 시스템에 포함되려면, 새로운 소리도 도입되어야 한다. 처음 몇십 개의 소리가 있고 난 후에는 새로운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필요할 때를 위해 그것을 기억하는 것 또한 어려워진다. 인간의 말은 제한된 수의 소리를 결합하여 무제한적인 수의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일반적인 인간의 언어에는 대략 30개 또는 40개의 독특한 말소리가 있다. 이 소리들을 연쇄적으로 결합하여 말 그대로 무제한적인 수의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심지어 한 번에 한 단어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린아이도 다른 어느 동물이 활용하는 어떤 시스템보다 엄청 더 뛰어난 의사소통 시스템을 사용한다.  
→ 동물의 울음소리에서 각각의 울음소리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나타내므로 가능한 메시지의 수가 제한되는 반면, 인간의 언어는 한정된 수의 독특한 소리 집합을 사용하여 무한한 수의 메시지를 만들어 낸다.

08. (3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8) [44%]

[빈칸의 의도 : 인과구조]

One of the factors determining the use of technologies of communication will be the kinds of investments made in equipment and personnel; who makes them, and what they expect in return.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investment will necessarily be in forms of communication that \_\_\_\_\_. Because the ownership of investment funds tends to be in the hands of commercial organisations, the modernisation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nly takes place on the basis of potential profitability. Take, for example, the installation of fibre-optic communications cable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A number of African nation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but its operational structures will be oriented to those who can pay for access. Many states that might wish to use it for education and information may not only find it too expensive but also simply unavailable to them. There can be no doubt that the development has been led by investment opportunity rather than community demand. [3점]

\*fibre-optic 광섬유의

Words & Phrases

- equipment 장비
- personnel 인력, 직원
- return 수익
- guarantee 보장
- appropriate 적절한
- ownership 소유권
- organisation 조직
- modernisation 현대화
- infrastructure 기간 시설
- profitability 수익성
- installation 설치
- continent 대륙
- oriented to ~을 우선하는

오답의 Pattern

- ① Minor의 Major화
- ② 단순한 내용 불일치
- ③ 무관한 선지
- ④ 출제자의 의도와 '반대'
- ⑤ '비약'적 선지

[25%] ① require minimal cost and effort to maintain [비약]

[44%] ② are most appropriate for the majority of people

[07%] ③ are in line with current standards and global norms [무관]

[11%] ④ employ some of the most advanced technologies [무관]

[13%] ⑤ promote the commercial interests of companies [반대]

Hero' Explanation

“빈칸문제를 틀린 공극의 이유는 출제자의 의도

즉, 빈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 해서 지문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빈칸을 포함한 지문에서 공극적으로 빈칸이 묻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제메뉴얼에 따르면 빈칸을 포함한 지문에는 '논리적 기재'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어요.

따라서 논리적 기재를 확인하여 논리적 사고를 통해 빈칸 즉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빈칸의 의도는 출제 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빈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칸의 의도(출제자의 의도) - 해석의 기준 설정] : 빈칸 포함 지문 속에 'no guarantee'라는 표현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논리적 기재가 빈칸의 의도가 <투자가 왜 보장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여 지문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①번 선지 : 빈칸 주변에 'no guarantee'라는 부정표현과 지문의 하단에 '비싸고 이용할 수 없다'는 표현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보장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이는 '비싸고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보장될 수 없다고' <비약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⑤번 선지 : 출제자의 의도 즉, 빈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빈칸 아래에 이어진 지문에만 집중하고 지문의 하단에 집중하여 '잠재적 수익성'과 발전이 '투자 기회'에 의해 이끌린다는 표현을 통해 회사의 상업적 이익을 향상 시킨다는 표현을 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 지문의 주제와 전개

### 주제

이 글은 통신 기술의 사용은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투자 결정에 의해 주로 좌우되며, 이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전개

#### [투자의 영향 - 1문장]

: 통신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이며, 누가 투자를 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대중의 적합성 보장되지 않음 - 2문장]

: 투자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통신 수단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 [상업적 소유의 영향 - 3문장]

: 투자 자금의 소유가 주로 상업적 조직에 있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의 현대화는 잠재적 수익성을 기준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 [사례: 아프리카 대륙의 광섬유 설치 - 4~5문장]

: 아프리카 대륙에 광섬유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는 사례를 들어, 이 개발이 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국가들은 교육과 정보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결론 - 6문장]

: 이러한 개발은 지역사회의 수요보다는 투자 기회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연계' 복습 합시다!

- (1) 빈칸완성 : 빈칸의 의도 파악 [해석의 기준 설정] → **'빈칸의 의도'**에 맞추어 <잔여지문: 정보 vs 비정보> 보기  
[MVP DB 2. 주제의 일부를 묻는 문제 p.94]
- (2) 빈칸의 의도 : <인과관계>에서 [원인] 묻기 [MVP DB - (3) 인과관계 p.98]
- (3) 강조했던 것들 잊지 않습니다!
  - ① 함축의미, 빈칸 유형에서 <밑줄 혹은 빈칸이 묻고자 하는 대상이 둘 중 어느 대상에 관해 묻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것!
  - ② 최근 Trend는 연결어가 생략된 지문을 선호하기 때문에 **반의적 흐름** 파악에 주의!
  - ③ 최근 매력적인 오답의 Trend는 **'비약적 선지'** : 지문의 정보의 정확한 활용에 주의!

**[해석]** 통신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장비와 인력에 들어가는 투자의 종류, 즉, 누가 투자를 하고, 그들이 수익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이다. 투자가 반드시 **다수의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통신 형태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투자 자금의 소유권은 상업적 조직의 수중에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신 기간 시설의 현대화는 오로지 잠재적 수익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친 광섬유 통신 케이블 설치를 예로 들어보자.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그 개발에 관여하고 있지만, 그것의 운영 구조는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국가들을 우선할 것이다. 교육과 정보를 위해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많은 국가는 그것이 자국에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 개발이 지역 사회의 수요보다는 투자 기회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09. (3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9) [46%]

[빈칸의 의도 : A but B 구도]

**City quality** is so crucial for optional activities that the extent of **staying activities** can often be used as **a measuring stick for the quality of the city** as well as of its space. Many pedestrians in a city are not necessarily an indication of good city quality - many people walking around can often be a sign of insufficient transit options or long distances between the various functions in the city. **Conversely**, it can be claimed that **a city in which many people are not walking** often indicates **good city quality**. In a city like Rome, it is **the large number of people standing or sitting** in squares rather than **walking that is conspicuous**. And **it's** not due to necessity **but** rather that **\_\_\_\_\_**. It is **hard to keep moving in city space with so many temptations to stay**. In contrast are many new quarters and complexes that many people walk through but rarely stop or stay in.

\*pedestrian 보행자 \*\*conspicuous 눈에 띄는

[46%] ① the city quality is so inviting

[23%] ② public spaces are already occupied [비약 or 반대]

[09%] ③ public transportation is not available [반대]

[14%] ④ major tourist spots are within walking distance [Minor] or [반대]

[08%] ⑤ the city's administrative buildings are concentrated [반대]

Words & Phrases

- crucial 중요한
- optional 선택의
- extent 정도
- indication 지표, 표시
- insufficient 부족한, 불충분한
- transit 운송
- conversely 반대로
- inviting 매력적인, 유혹적인
- temptation 유혹
- quarter 구역, 지구
- complex (건물) 단지

오답의 Pattern

- ① Minor의 Major화
- ② 단순한 내용 불일치
- ③ 무관한 선지
- ④ 출제자의 의도와 '반대'
- ⑤ '비약'적 선지

Hero' Explanation

[빈칸의 의도(출제자의 의도) - 해석의 기준 설정] : 빈칸의 의도는 일단, 'It'이 가리키는 대상을 명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It'은 '걸지 않는 것', '머물거나 앉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걸지 않고 머무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지문의 특징> : 지문은 <대조구도>입니다. 즉, 두 대상, '걸고 움직이는 것'과 '걸지 않고 머무는 것'이 대립되는 구도입니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수능영어의 Trend이자 빈칸완성의 Trend입니다. [A but B의 대립구도 일 때]는 <두 대상 중 빈칸이 어느 것에 관련하여 묻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의 특징> : 절대평가 이후 짧은 영어 학습 투자를 생각해봤을 때, 수험생들이 inviting의 의미를 알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제한 것이라면 이는 수능 빈칸완성 선지의 특징이 맞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완전한 고난도 어휘가 아닌, 익숙한 듯 하지만 다른 의미를 갖는 어휘들을 선지를 만들 때 이용하는 것은 최근에 자주 사용되던 패턴입니다. 이럴 때 오답소거만이 해법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②번 선지> : '이미 차지가 되었다'는 의미에 대한 오역으로 인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도시가 이미 차지되었다는 의미를 도시에 볼 것들이 채워져서 즐기고 있다고 '비약적' 판단했거나 도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차지했다고 보고 걸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미 채워져 있다'는 의미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부정적 의도로 쓰인 표현입니다.

<④번 선지> : 빈칸의 의도 파악에서 가장 중요한 'It'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지 않은 듯 보이고, 빈칸 아래 진술들에 주목하여 움직이기 어렵고, 걸을 수 있는 많은 구역과 단지가 있다는 표현만 보고 답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지문의 주제와 전개

### 주제

이 글은 도시의 질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활동의 정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도시 공간의 매력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 전개

[도시의 질과 머무르는 활동의 중요성 - 1문장]

: 도시에 머무르는 활동의 정도는 도시와 그 공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도시에서 걷는 사람들의 수가 반드시 도시의 질을 나타내지 않음 - 2문장]

: 도시에 많은 보행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도시의 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통 옵션의 부족이나 도심 기능 간의 거리 때문일 수 있다.

[걷는 사람이 적은 도시가 도시 질이 좋을 수 있음 - 3문장]

: 반대로, 걷는 사람이 적은 도시는 도시 질이 좋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로마의 사례 - 4~5문장]

: 로마와 같은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걷기보다는 광장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띄며, 이는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질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머물도록 유혹하는 요소가 많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대조적인 새로운 지역들 - 6문장]

: 반면, 많은 사람들이 걷기는 하지만 머물거나 정착하지 않는 새로운 지역과 복합 단지들이 대조적으로 존재한다.

## ‘연계’ 복습 합시다!

(1) 빈칸완성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패턴은 <빈칸이 묻고자 하는 대상이 둘 중 어느 대상에 관해 묻는 것인지>입니다.

매년 출제되는 패턴만큼 확실하게 익혀두어야만 합니다. [MVP DB (1) 둘 중 하나의 대상 p.102]

※ 이 외에도 빈칸완성에서 자주 출제되는 패턴들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미리 익혀둡시다!

[MVP DB 3. 빈칸완성의 두드러지는 패턴 p.102]

(2) 강조했던 것들 잊지않습니다!

- ① 함축의미, 빈칸 유형에서 <밑줄 혹은 빈칸이 묻고자 하는 대상이 둘 중 어느 대상에 관해 묻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것!
- ② 최근 Trend는 연결어가 생략된 지문을 선호하기 때문에 **반의적 흐름** 파악에 주의!
- ③ 최근 매력적인 오답의 Trend는 **‘비약적 선지’**: 지문의 정보의 정확한 활용에 주의!

**[해석]** 도시의 질은 선택적 활동에 매우 중요해서, 머물기 활동의 정도가 흔히 도시의 공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질을 측정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다. 도시의 많은 보행자가 반드시 도시의 질이 좋다는 지표인 것은 아니며, 걸어서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은 흔히 부족한 운송 선택권 또는 도시 내 다양한 기능 간의 먼 거리의 지표일 수 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걷지 않는 도시는 흔히 좋은 도시의 질을 나타낸다고 주장될 수 있다. 로마와 같은 도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걷기보다는 광장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그 도시의 질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도시 공간에는 머무르게 하는 유혹이 너무 많아서 계속 움직이기 어렵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걸어서 지나가지만 거의 멈추거나 머무르지 않는 많은 새로운 구역과 단지가 있다.

10. (3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0) [31%]

[빈칸의 의도 : A but B 구도 - '공통점' 고려]

**That people need other people** is hardly news, but for Rousseau **this dependence extended far beyond companionship or even love, into the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 Rousseau believed that people are not born but made, **every individual** a bundle of potentials whose realization requires **the active involvement of other people.** **Self-development is a social process.** Self-sufficiency is an impossible fantasy. Much of the time Rousseau wished passionately that it were not. Robinson Crusoe was a favorite book, and he yearned to be free from the pains and uncertainties of social life. **But his writings document** with extraordinary clarity \_\_\_\_\_ . "Our sweetest existence is relative and collective, and our true self is **not entirely within us.**" And it is kindness - which Rousseau analyzed under the rubric of *pitié*, which translates as "pity" but is much closer to "**sympathy**" as Hume and Smith defined it — that is the key to **this collective existence.**

\*yearn 갈망하다 \*\*rubric 항목

Words & Phrases

- extend (~에) 이르다, 미치다
- companionship 동료 관계
- involvement 관여
- self-development 자기 계발
- self-sufficiency 자족
- passionately 열렬하게
- uncertainty 불확실성
- document 기록하다
- extraordinary 보기 드문, 뛰어난
- clarity 명료함
- relative 상대적인
- collective 집단적인
- existence 존재
- entirely 아주, 완전히
- sympathy 공감, 동정

- [23%] ① the necessity of philosophical study to understand human nature [비약]  
 [23%] ② the development of self-sufficiency through literary works [반대]  
 [31%] ③ **the shaping of the individual by his emotional attachments**  
 [18%] ④ the making of the self-reliant man through his struggles [반대]  
 [04%] ⑤ the difficulty of trusting other people wholeheartedly [반대]

오답의 Pattern

- ① Minor의 Major화
- ② 단순한 내용 불일치
- ③ 무관한 선지
- ④ 출제자의 의도와 '반대'
- ⑤ '비약'적 선지

Hero' Explanation

[빈칸의 의도(출제자의 의도) - 해석의 기준 설정] : 빈칸의 의도는 '루소의 글이 결국 무엇을 기록한 것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문의 특징> : 앞서서도 <연결어가 생략된 전개>가 수능영어의 Trend라고 언급했었는데, 이 지문 역시 Much of time ~ 앞에 However이 생략된 전개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A but B>의 구도이며, A와는 달리 결국 B를 말하는 전개입니다. <A but B 구도>에서 빈칸을 고려할 때는 A와 B 반의적 구도의 <공통된 기준>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지문에서는 <사회적 교류 (=교감, 동정, 공감)이 바로 공통점>인 것입니다.

<선지의 특징> :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예상이 되더라도 그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1차원적 선지가 아닌 2차원적 선지를 주는 것이 수능 빈칸완성의 정답 선지의 Trend이기도 합니다. 즉, 사회적 교류, 교감, 공감 등이 선지에 있어야만 하는데, 직접적 표현 보다는 'emotional attachments'로 2차원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attachment는 일반적으로 '애정, 집착, 부착, 부착물' 정도의 의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공감'이라는 의미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①번 선지> : 지문이 인간의 개인으로서의 성장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교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토대로 인간의 궁극적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비약적으로 판단한 듯 보입니다.

<②번 선지> : But 앞에서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고 but을 그에 대한 역점으로 판단해서, 결국 자급자족을 개발한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however이 생략된 것을 인지하지 못 한 것이 가장 큼니다.

<④번 선지> : 역시 but 이전까지를 개인을 중심으로는 개인을 발달시킬 수 없다고 파악하여 But 이후 역점을 고려해 결국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역시 however이 생략된 것을 인지하지 못 한 것이 가장 큼니다.

## 지문의 주제와 전개

### 주제

루소는 인간의 자아발달이 사회적 과정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인간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 전개

#### [루소의 인간 의존성에 대한 관점 - 1문장]

: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루소에게 이 의존성은 단순한 동반자 관계나 사랑을 넘어 인간이 되는 과정 자체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 [자아발달의 사회적 과정 - 2문장]

: 루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잠재력을 실현해야 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자아발달은 사회적 과정이며, 자족은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 [자족의 환상과 루소의 내적 갈등 - 3~4문장]

: 루소는 자족이 가능하기를 열망했으나, 그의 글은 개인이 정서적 애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참된 자아가 완전히 그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집단적 존재와 연민의 역할 - 5~6문장]

: 루소는 우리의 달콤한 존재가 상대적이고 집단적이며, 루소가 분석한 연민(*pitié*)이 이 집단적 존재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연민은 Hume과 Smith가 정의한 '공감'에 더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 '연계' 복습 합시다!

- (1) 빈칸완성에서 또 하나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고난도 패턴'은 <A but B 구조에서의 '공통점'>입니다.  
매년 주로, **매년 34번으로 자주 출제되는 패턴**만큼 확실하게 익혀두어야만 합니다. [MVP DB (3) A but B p.106]  
※ 이 외에도 빈칸완성에서 자주 출제되는 패턴들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미리 익혀두십시오!  
[MVP DB 3. 빈칸완성의 두드러지는 패턴 p.102]
- (2) 강조했던 것들 잊지 않습니다!
  - ① 함축의미, 빈칸 유형에서 <밑줄 혹은 빈칸이 묻고자 하는 대상이 둘 중 어느 대상에 관해 묻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것!
  - ② 최근 Trend는 연결어가 생략된 지문을 선호하기 때문에 **반의적 흐름** 파악에 주의!
  - ③ 최근 매력적인 오답의 Trend는 '**비약적 선지**': 지문의 정보의 정확한 활용에 주의!

**해석**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거의 새로운 게 없지만, Rousseau에게는 이러한 의존이 동료 관계나 심지어 사랑을 넘어 인간이 되는 바로 그 과정에까지 이르렀다. Rousseau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모든 개인은 잠재성 꾸러미라고, 이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자기 계발은 사회적 과정이다. 자족은 불가능한 환상이다. 루소는 대부분 시간을 그것이 그렇지 않기를 열렬히 바랐는데, *Robinson Crusoe*는 좋아하는 책이었고, 그는 사회생활의 고통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그의 저작은 보기 드문 명료함으로 **정서적 유대에 의해 개인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록한다.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상대적이고 집단적이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존재의 핵심은 친절인데, Rousseau는 이를 'itié'라는 항목 아래에 분석하였고, 이는 '연민'으로 번역되지만, Hume과 Smith가 정의한 '공감'에 훨씬 더 가깝다.

## SOAR-CS

## Contents

## Chapter I. 대의 [주제 &amp; 제목]

## Part 1. [글의 전개]로 확인하는 &lt;주제&gt;

1. [동의, 인과, 반의] 전개에서의 주제 파악
2. 연결어의 혼동 유발
3. 연결어 생략 전개
4. Exercise

## Part 2. 고난도 대의 특징

1. 핵심어 파악이 어려운 경우
2. 선지 선별이 어려운 경우
3. Exercise

## Chapter II. 함축의미

## Part 1. 주제 자체를 묻는 문제

## Part 2. 주제의 일부를 묻는 문제

1. 핵심어
2. 작가의 의도 - A는 B(밑줄)이다.
3. 인과 관계
4. 주제와 반대[반의] 관계
- (5) 비교급

## Part 3. Exercise

## Chapter III. 어휘 추론

## Part 1. 양자택일과 밑줄어휘

1. 양자택일 - Binary Chchoice Pattern
2. 밑줄어휘 - Correcting Pattern

## Part 2. 주제의 파악이 어려운 Pattern

1. 서두에 어휘를 출제하는 경우
2. 부정, 반박 도구를 통한 주제 혼동 유발
3. 대조 구도를 통한 주제 혼동 유발
4. 논리적 혼동 유발

## Part 3. Exercise

## Contents

### Chapter 1. 순서배열

#### 1. 작가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습관

- (1) 지시어, 대명사 / 연결어
- (2) 연결어 생략 (연결어 대체 표현)
- (3) 전제, 조건 / 선후표현
- (4) 논리정보장치 & 문두의 전치사구
- (5) 논리정보장치 & 처음, 마지막 표현
- (6) 논리정보장치 & 비교급

#### 2. 순서배열의 두드러지는 패턴

- (1) 2개 Chunks의 맞물림
- (2) 제시문의 논리적 구도가 뚜렷할 때
- (3) 유사패턴의 반복

#### 3. Exercise

### Chapter 2. 문장삽입

#### 1. 제시문에 연결어가 있는 경우

- (1) <예시>의 연결어가 있는 경우
- (2) <첨가>의 연결어가 있는 경우
- (3) <비유>의 연결어가 있는 경우
- (4) <인과>의 연결어가 있는 경우
- (5) <역접>의 연결어가 있는 경우

#### 2. 제시문에 연결어가 없는 경우

- (1) 제시문 속 <지시어, 대명사>
- (2) 연결어 대응 표현
- (3) 선후관계의 표현
- (4) 전제, 조건의 표현
- (5) 비교급

#### 3. 제시문 속 뚜렷한 논리구도

#### 4. Exercise

### Chapter 3. 빈칸완성

#### 1. 주제 자체를 묻는 문제

#### 2. 주제의 일부를 묻는 문제

- (1) 핵심어
- (2) 작가의 의도 - A는 B(빈칸)이다
- (3) 인과관계

#### 3. 빈칸완성의 두드러지는 패턴

- (1) 둘 중 하나의 대상
- (2) 논리적 혼동 유발
- (3) A But B
- (4) 주제와 반대
- (5) 뚜렷한 논리구도의 빈칸진술

#### 4. Exercise

- (1) Blank가 서두에 있는 경우
- (2) Blank가 중간에 있는 경우
- (3) Blank가 말미에 있는 경우
  - A. Blank가 지문의 마지막에 있는 경우
  - B. Blank이후 부연 설명이 있는 경우

## Final 1,2

## Final 1차 구간별 “Intensive” 훈련

## “Half Simulation”

**Decisive Battleground** - 3+4구간  
**CornerStone** - 1+2구간

“빠르고 효과적으로 푸는 법!”

“구간별 공략으로 먼저!”

1. [1+2구간, 3+4구간]을 Half 형식으로 연습!
2. [틀리는 이유]를 중심으로 <해결안> 터득!
3. [고난도 문제]를 ‘쉽고 빠르게’ 시간 단축 해결!
4. ‘출제자의 Trick’ 파훼법 훈련
5. [숲에서 나무]로 학습  
: 구간별 Half 모고 → 취약 유형 집중 훈련

## 최종 점검 Final F.C.Hero

## “가장 현실적인 Simulation”

**F.C.Hero**  
**the Last Phoenix**  
 - Final Completion with Hero -

“수능 영어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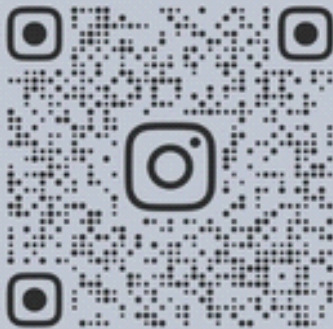
“마지막 승부수!”

1. [전 구간]을 실전과 같은 형식으로 연습!
2. 70분간 45문제의 전략적 운영 연습!
3. 실전 상황에서의 위기 대처 능력 장착!
4. 실전 상황에서의 Mind Control 훈련!
5. [틀리는 이유]를 중심으로 <해결안> 터득!
6. [고난도 문제]를 ‘쉽고 빠르게’ 시간 단축 해결!
7. ‘출제자의 Trick’ 파훼법 훈련



# HERO's SNS

## Instagram



# @ hero\_etn  
# HERO & 조교단 일상  
# Follow us!!

## YouTube



# Hero@동고동락  
# 다양한 Contents  
# 구독&좋아요 'ㄷ'

## Cafe



# Sample 강의  
# 여러 커리큘럼 영상  
# Hero's 프리패스

## Blog



# All about HERO  
# Hero Class의 모든것  
# 자세한 커리큘럼 안내



2025학년도

# 9월 모평 영어영역

Etoos HERO 김형률

해석 & 어휘



1등급의 가능성을 절대성으로!

with **HERO**

## 9월 평가원 영어영역

## 1)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추론

**해석**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연과학에서 훈련받은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와 사회 과학자들이 문화 집단 연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인류학자들 중 일부는 다른 건 몰라도 연구 대상인 사람들을 실제로 관찰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ranz Boas와 Alfred Cort Haddon과 같은 초기 민족지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외딴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몇 주에서 몇 달을 보냈다. 그들은 (식민지 관료, 선교사 혹은 사업가와 같이) 주민들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서양인 호스트를 찾아내어 그들을 통해 숙박 시설을 구했다. 가끔은 그들은 정말이지 가이드 없이 그 지역사회를 탐험하기도 했지만, 대개 그들은 현지인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관찰은 주로 그들의 '베란다'에서 행해졌다.

정답 ③

**해설** 20세기에 들어, 자연과학에서 훈련받은 인류학자들이 인문·사회 과학의 문화 집단 연구 방식을 재고하며, 연구 대상인 사람들을 직접 관찰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현장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초기 민족지학자들은 연구 대상인 현지인들의 지역에 머물며 그 지역사회를 탐험하기도 했지만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연구되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거의 하지 않음'이다.

- ① 원주민과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
- ② 자연 과학자들과의 공동 연구에 참여하기
- ③ 지역사회에서 서양인 호스트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 ④ 조사 대상인 원주민 문화에 관한 더 넓은 관점을 갖기 위해 애쓰기

## 2) 글의 주제 추론

**해석** 낙하하는 물체나 밤이 낮으로, 낮이 밤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평범한 현상보다 일식과 같은 특이한 현상에 놀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들에게 충격, 공포, 또는 놀라움을 주었던 이러한 일식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문화에서 신을 만들어 냈지만, 너무 익숙해서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낙하하는 물체의 신을 상상했던 문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밤과 낮이 연속되는 이유와 궁극적으로 동일한데, 즉 그 자체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기반하는 천체의 움직임과 그것이 우리가 물체를 놓으면 왜 떨어지는지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물리학자로 말할 것 같으면, 평범한 것, 습관적인 것, 빈번한 것을 이해하여 우리가 무서운 것과 기묘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그와 같이, 우주의 모든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훨씬 더 기괴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체는 왜 떨어지는가?"라고 질문하는 것과 뉴턴식의 답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

정답 ④

**해설** 물리학자는 평범한 것, 습관적인 것, 빈번한 것을 이해하여 우리가 무서운 것과 기묘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주며, 우주의 다양하고 기괴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평범한 현상에 대한 물음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특이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필요성'이다.

- ① 과학적 설명보다는 신화적 설명에 대한 광범위한 선호
- ② 일식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뉴턴 법칙의 한계
- ③ 현실 인식에 대한 과학적 해석의 영향
- ⑤ 특이한 현상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의 어려움

## 3)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낱말 고르기

**해석** 우리는 모두 자신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며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여기고 싶어 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린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는 심리학자 Dan Ariely가 이 주제에 관한 자신의 책에 붙인 제목처럼 '예측할 수 있게 비합리적'이다. 우리는 모두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사고를 하며, 일반적으로 더 쉬운 길을 택하고 정신적 노력을 절약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주관적인 인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급한 판단을 내리거나 실제 판단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게다가, 수많은 편향이 성찰적이고 신중한 사고를 억제하거나 무시하는데, 직관적인 이론도 정확한 과학적 설명의 수용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편향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잘못된 추론에 덜 빠지고, 더 합리적이며, 다른 사람의 사고의 문제점을 더 잘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정신 과정에 내재한 합리성(→ 한계)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합리적인 행위자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사고는 자동적이고 반사적이며 편향의 영향을 받는데, 그러한 사고의 비합리성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보 전달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⑤의

rationality를 limitations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한다.

4) [41~42] 복합문제

**해설** 사람들이 문자 기반 사회에서 문자로 쓰인 시와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에서 말로 전달되는 시가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일상의 언어와 상당히 다르다고 느낄 때 그들은 옳은 것이다. 감상자는 단어의 낯선 사용, 어순의 재배열, 유운, 두운, 운율, 운, 사과의 압축 등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시가 '시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는 실망한다. 그러나 시를 완전히 다른 범주의 언어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시인의 진정한 업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인은 일상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언어의 원료를 교묘히 조작하는데, 그의 솜씨는 이미 언어에 있는 자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과 아주 마찬가지로, 우리 대부분은 고막을 때리는 매일 수백만 단어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에 민감하게(→ 무감각하게) 된다. 시의 한 가지 기능은 신선한 인식으로 세상을 묘사하여, 즉 그것을 낯설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어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을 이룬 시인은 낯선 언어의 세계로 결코 자신의 청취자 중 누구도 자신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멀리 떠나지는 않는다. 그는 여전히 (효과적인) 전달자, 즉 언어의 능숙한 사용자로 남아 있다.

41. 장문에서의 글의 제목 추론

**정답** ①

**해설** 시의 언어가 문자로 쓰여 있든 혹은 말로 전해지든 일상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느끼고 감상하는 사람들로서는 시의 언어가 운율 등 시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지 못해 시적이지 않게 느껴진다면 실망감이 들 수도 있겠으나, 시인은 오히려 일상의 언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여, 이를 교묘히 조작함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는 것을 진정한 성취로 삼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롭게 만들기: 시가 일상의 언어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다.  
② 시인은 왜 더 이상 자연에서 영감을 구하지 않는가?  
③ 자연에서의 소리가 시적 표현에 끼치는 영향  
④ 일상적인 연설에서 시적 표현을 인용하는 방법  
⑤ 재발견된 아름다움: 구전 시의 귀환

42. 장문에서의 글의 어휘 추론

**정답** ③

**해설** 시인이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여 시의 언어로 숨씨 있게 다루어 만들어 내는 언어는 실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듣고 있는 언어인데, 이는 곧 바닷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파도 소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이 되어야 하므로 (c)의 sensitive는 insensitive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한다.

5) 이어질 글의 순서배열

**해설** 학습이 단순히 사실의 목록을 축적하는 문제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넘어서는 정보가 제공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C) 각 사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저장될 것이다. 그러나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활동 패턴으로 조직되며,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이전 자료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패턴을 수정해야 한다. (B) 새로운 정보가 약간만 새로운 것일 때, 즉 그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있어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패턴을 약간만 조정하면 될 때 조정은 분명 가장 적다. (A)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패턴의 단위를 더 크게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뇌의 수많은 연결 강도를 변경해야 하며, 이것은 어렵고 피곤한 과정이다.

**정답** ⑤

**해설** 학습이 단순히 사실의 목록을 축적하는 문제라면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그런 경우에는 각 사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저장될 것이라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 지식이 패턴으로 조직되고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 기존 패턴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C) 다음에는 (추가되는) 새로운 정보가 약간만 새로운 것일 때는 기존 패턴을 약간만 조정하면 된다는 내용의 (B)가 오고, 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패턴의 단위를 더 크게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어렵고 피곤한 과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역접을 나타내는 however가 쓰인 (A)가 와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6)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 찾기

**해설**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된 로봇의 구상과 엔지니어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주위의 다른 실재물과 자신을 구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핵심적인지 알고 있다.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분이 블록을 쌓기 위해 방에 흩어져 있는 블록을 찾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고 상상해 보라. 이 간단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기계는 자신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자극과 주위의 블록에서 발생하는 자극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로봇에 인공 눈과 인공 팔을 갖추게 하여 블록을 감지하고, 잡고, 쌓도록 한다고 가정해 보라.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여러분의 기계에는 그것이 블록 감지와 자신의 팔 감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로봇이 블록이 아닌 자기 자신을 끝없이 쫓아갈 수도 있다. 로봇은 자신을 목표물이나 외부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순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정답 ⑤

**해설** 로봇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주위의 실재물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If not으로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은, 그렇지 않으면 로봇이 블록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쫓아갈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앞에는 로봇이 블록을 쫓아가게 할 필요한 조건이 제시되고, 뒤에는 주어진 문장의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7) 요약문 완성

**해설** 일단 비상사태의 소요가 진정되고 나면, 주로 강화된 경제 성장이나 지방 경제의 회복, 혹은 경제 활동의 다각화에서 기근 취약성 감소를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더 큰 경제적 성공의 잠재적 기여는, 만약 그것이 취약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면, 부인할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인구의 상당수가 그들의 생계를 불확실한 원천으로부터 마련하는 국가는 직접적인 공적 개입을 포함하는 특화된 재정 지원 혜택의 보호 방법 없이는 기근 예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츠와나의 경제, 케냐의 농업 부문, 혹은 짐바브웨의 식량 생산의 급속한 성장은 기껏해야 기근의 반복되는 위협을 방지하는 데 있어 그들이 성공한 작은 일부분만을 설명할 뿐이다. 이들 국가의 진정한 성과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공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데 있다.

→ 비록 경제 성장이 한 국가의 기근 위험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답 ②

**해설** 경제 성장이 기근 취약성 감소에 잠재적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공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효과적일 - 중요한'이다.

- ① 생산적일 - 복잡한
- ② 효과적일 - 중요한
- ③ 우세할 - 포괄적인
- ④ 제한적일 - 적절한
- ⑤ 바람직할 - 비용 효율이 높은

8) 빈칸 추론

**해설** 통신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장비와 인력에 들어가는 투자의 종류, 즉, 누가 투자를 하고, 그들이 수익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이다. 투자가 반드시 다수의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통신 형태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투자 기금의 소유권은 상업적 조직의 수중에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신 기간 시설의 현대화는 오로지 잠재적 수익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친 광섬유 통신 케이블 설치를 예로 들어보자.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그 개발에 관여하고 있지만, 그것의 운영 구조는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국가들을 우선할 것이다. 교육과 정보를 위해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많은 국가는 그것이 자국에 너무 비쌌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 개발이 지역 사회의 수요보다는 투자 기회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통신 시설의 현대화는 주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로 결정되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통신 서비스는 비싸거나 이용할 수도 없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다수의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이다.

- ① 유지 관리에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 ② 현재 표준 및 글로벌 규범과 부합하는
- ③ 가장 진보된 기술 중 일부를 사용하는
- ④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촉진하는

9) 빈칸 추론

**해설** 도시의 질은 선택적 활동에 매우 중요해서, 머물기 활동의 정도가 흔히 도시의 공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질을 측정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다. 도시의 많은 보행자가 반드시 도시의 질이 좋다는 지표인 것은 아니며, 걸어서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은 흔히 부족한 운송 선택권 또는 도시 내 다양한 기능 간의 먼 거리의 징표일 수 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걸지 않는 도시는 흔히 좋은 도시의 질을 나타낸다고 주장될 수 있다. 로마와 같은 도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걷기 보다는 광장에서 있거나 앉아 있는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그 도시의 질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도시 공간에는 머무르게 하는 유혹이 너무 많아서 계속 움직이기 어렵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걸어서 지나가지만 거의 멈추거나 머무르지 않는 많은 새로운 구역과 단지가 있다.

정답 ①

**해설** 머물기 활동의 정도가 도시의 질을 측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도시 공간에 머무르기보다 걷는 경우는 도시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반대로 많은 사람이 특정 장소에 오래 머무르고 걷지 않는다면,

- 도시의 질이 좋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 도시의 질이 매우 매력적이기'이다.
- ② 공공장소가 이미 점유되었기
  - ③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 ④ 주요 관광지가 도보 거리 내에 있기
  - ⑤ 도시의 행정 건물이 밀집되어 있기

10) 빈칸 추론

**해석**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거의 새로울 게 없지만, Rousseau에게는 이러한 의존이 동료 관계나 심지어 사랑을 넘어 인간이 되는 바로 그 과정에까지 이르렀다. Rousseau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모든 개인은 잠재성 꾸러미라고, 이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자기 계발은 사회적 과정이다. 자족은 불가능한 환상이다. 루소는 대부분 시간을 그것이 그렇지 않기를 열렬히 바랐는데, *Robinson Crusoe*는 좋아하는 책이었고, 그는 사회생활의 고통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그의 저작은 보기 드문 명료함으로 정서적 유대에 의해 개인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록한다.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상대적이고 집단적이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존재의 핵심은 친절인데, Rousseau는 이를 'itié'라는 항목 아래에 분석하였고, 이는 '연민'으로 번역되지만, Hume과 Smith가 정의한 '공감'에 훨씬 더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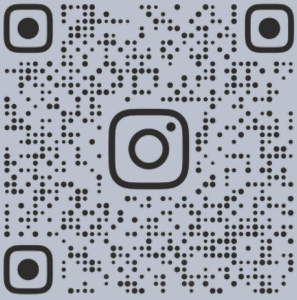
**정답** ③

**해설** Rousseau는 인간의 자기 계발은 사회적 과정으로서 인간이 형성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친절[연민, 공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정서적 유대에 의해 개인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 ① 인간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연구의 필요성
- ② 문학 작품을 통한 자족의 개발
- ④ 투쟁을 통해 자립적인 사람 만들기
- 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의 어려움

# HERO's SNS

## Instagram



# @ hero\_etn  
# HERO&조교단 일상  
# Follow us!!

## YouT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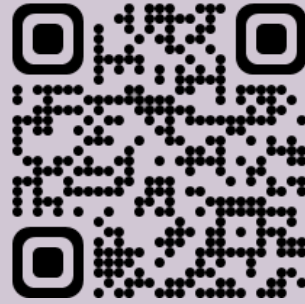
# Hero@동고동락  
# 다양한 썰강  
# 구독&좋아요 'ㄷ'

## Cafe



# Sample 강의  
# 커리큘럼 영상  
# Hero's 프리패스

## YouTube



# 공차영  
# 수업&해설강의  
# 구독&좋아요 'ㄷ'

## Blog



# All about HERO  
# Hero Class의 모든것  
# 자세한 커리큘럼 안내

1등급의 가능성을 절대성으로!

with **HERO**